

【논 문】

‘개척’과 ‘갱생’, ‘신민-되기’ 사이의 미묘한 거리 -장혁주의 「어느 독농가의 술회」, 「순례」 『개간』을 중심으로-

김 지 영*

┃ 차 례 ┃

1. 꿈과 희망을 파는 ‘창조된’ 만주
2. ‘개척’과 ‘갱생’ 사이의 개척촌
3. ‘갱생’에서 ‘신민-되기’로 나아가기
4. 건강하고 명량한 ‘신민-되기’

국문초록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일본어작가 장혁주는 일본문단에서 활동하였지만, 식민지 조선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제국 일본이 떼어주지 않는 한, 그는 스스로 그 굴레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식민지 조선 출신 일본어작가라는 사실은 그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래서 장혁주에게 누구보다 ‘개척’과 ‘갱생’, 새로운 ‘신민-되기’가 중요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제국 일본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의 출신은 비로소 가상의 제국이자 괴뢰국인 만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개척촌을 이룬 이주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혁주는 식민지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곳에서 진정으로 제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게다가 만주 개척촌의 이주조선인들은 험난하고 지난한 개척 과정을 거치면서 제국이 원하는 ‘신민’으로 ‘갱생’할 자격, 즉 신체 건강하고 명량한 자격을 갖추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혁주가 1943에 발표한 세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주제어 : 장혁주, 만주, 개척, 개간, 갱생, ‘신민-되기’

1. 꿈과 희망을 파는 ‘창조된’ 만주

과연 만주는 식민지 조선에서 어떠한 위치였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 만주는 조선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국경의 분쟁지역이었지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에는 가난을 피하고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보류이거나 항일의 거점이 되었다. 사실 식민지 조선에서 살기 힘든 조선인들에게 만주라는 공간이 주는 희망의 이미지는 1910년부터 해방 전까지 이어진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 이후 ‘창조된’ 만주의 이미지는 제국 일본에 의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¹⁾

1910년대와 1920년대에도 제국 일본은 전략적으로 식민지 조선인들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펼쳤던 만주이주정책의 규모와 적극성은 이전과는 달랐다. 만주는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성장한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이미지마케팅으로 만주는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에게 재탄생되어 소비된다.²⁾

1) 관동군은 만주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것 같은 일본인 농민들을 조선농민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중략)… 관동군의 관점의 변화는 만몽정책 자문회의가 끝난 직후 작성된 일본인 「이민 방책안」의 도입부에 잘 나타나 있다. 그곳에서 관동군은 “신국가의 이민방책은 극력 일본인 농가의 이식을 장려조장하고, 조선인에 대하여서는 오는 것을 막지 않는 정도에 그치고, 중국인에 대하여서는 가능한 한 문호를 폐쇄하여 한층 궁민의 증가를 방지하는” 정책을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중략)…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인 1928~32년 사이에 조선에 밀어닥친 농업 공황과 재해는 조선 특히 남부 조선 농촌의 파괴를 가져와 이 지역의 유랑민화를 격화시켰다. 이러한 잠재적 이민들의 목적지인 만주에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조선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일제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임정책을 취했던 유출 조건과 유입 조건의 형성은 만주사변 전보다 더 많은 수의 조선인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202~206쪽).

2) 정중현은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2007, 『한국문학연구』 제33집)에서 식

1938년과 1940년에 『조광』에 실린 두 편의 소설, 김남천의 「철령까지」와 김진수의 「잔해」는 ‘창조된’ 만주의 이미지가 1930년대 후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허상이 실제 만주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남천은 1938년 10월 『조광』에 「철령까지」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만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인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회의 땅으로서의 만주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국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에게 만주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식민지 조선인들은 살기 위해 계속 만주로 가야 했고 ‘창조된’ 만주의 이미지를 믿어야만 했다. 그러나 1940년 2월에 발표된 김진수의 「잔해」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기회의 땅이라는 ‘창조된’ 이미지 속에 감춰진 만주의 현실, 즉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만주의 ‘창조된’ 이미지에 속아서 가족과 만주로 이주한 주인공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노름에 빠져서 아내도 카페의 여급으로 전락시키고 어머니의 돈마저 탕진한다. 그러나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가족을 비웃으며 먼저 떠난 아내가 자신의 뒤통으로 남긴 여비를 들고 유곽으로 향한다. 이 소설에는 1930년대에 유행한 만주 붐과 일확천금의 꿈, 만주국 채권 발행과 배당금 등을 통해 만주라는 허상을 따라 소비하며 이를 수 없는 꿈을 꾸고 망가지는 식민지 조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확천금이라는 달콤한 꿈을 따라서 만주로 왔지만, 결국 암울한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폐인이

민지기와 해방기의 딱지본 대중소설에 드러난 ‘만주’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만주’는 수난의 땅으로 추상화되고 식민지인으로서의 민족적 설움은 이 만주라는 공간과 결합되어 공감되고, 소비되었”다며 딱지본 대중소설은 “민족/식민주의 담론을 내면화 하면서 엘도라도를 향한 욕망의 공간으로 만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대중들의 당대 만주 경험을 결합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려실은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2004, 『상허학보』 No.13)에서 “항일-친일, 수탈-저항이라는 이항대립에서 벗어나, 만주사변 이후 가속화된 일본의 식민주의와 더불어 중국 및 일본의 신생식민지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조선의 2인자적 위치를 획득하려는 변칙적인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인터/내셔널리즘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인터/내셔널리즘은 만주국내에서 조선인의 역할분담론에서 파생하여 대중매체에 의한 조장, 확대되면서 일본의 식민주의가 총력전체제로 접어드는 중일전쟁 무렵부터는 대동아공영권론에 포섭되어 전시 동원체제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물질적 기반 없이 국제어, 스포츠, 영화 같은 문화라는 소프트를 중심”으로 인터/내셔널리즘이 상상되었다는 것이다.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 ‘창조된’ 만주의 이미지를 폭로한다.)³⁾

살아남기 위해 가야 했던 만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이주조선인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그들을 현혹했던 일확천금의 꿈은 버려야 했다. 「잔해」에서처럼 만주에서 노름꾼이 되어 밀바다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철령까지」의 둘째 아들과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면성실하게 땅을 ‘개척’하고 이전까지의 삶을 버리고 ‘갱생’할 의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아무도 어디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결국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실제로 싸우고 부딪치면서 이 사실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룩한 개척촌은 어느 순간 제국 일본의 ‘신민-되기’ 프로젝트 속으로 편입된다. 그리고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중반까지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제국 일본의 호명을 받고 만주를 방문하여 개척촌을 취재하며 이주조선인들의 성공담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발표한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을 방문한 작가들이 이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작가가 비슷한 소재로 발표한 작품들 속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사실이다.⁴⁾ 이는 대표적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어작가였던 장혁주 역시 마찬가지인데, 장혁주는 1939

3) 일원으로 채표를 사기 위해서 봉우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지 못하고 걸어간다. 봉우는 배당금을 받아 상해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상해지방에를가면 항공장권을 살수있다는말을 들은다음부터 봉우는 턱없이 상해를 그리워하였다.’ ‘봉우의꿈은 기껏 두채로 맞아서 만원바뀌되지못하는 만주국채표는 심차지가 않아 “이천삼백오십육”“육천일백사십사” 등의 채표번호를 중얼거린다. 이번 달에도 만주국채표를 석장이나 산 봉우다. ‘봉우는 만주땅에서 인간의노력을 초월한 일확천금의꿈을 실현시켜보려고했다. 그래서 달마다 걸느니않고 채표를 석장 다섯장 어떤달에는 열장까지사가지고는 저만이 속은 것이 아니고 집안사람들에게까지 속여오기를 이년이나 되풀이를해왔다.’ 결국 봉우를 만날 수 없던 아내 설이는 카페 목마에 마지막으로 봉우에게 편지와 고향으로 돌아올 여비를 남긴다. 시간이 흐른 후 목마에 들른 봉우는 설이의 편지를 받고 아무 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식구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설이가 남긴 돈으로 유곽을 찾아가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김진수, 1940. 2, 『잔해』, 『조광』 52).

4) 만주 개척촌을 방문한 후에 발표한 소설들 중 같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쓴 작품과 일본어로 쓴 작품이 있다. 이는 분명 다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조선인들 중에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작품을 썼다는 것은 일본의 독자층도 고려한 의도된 글쓰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년에 만주를 처음으로 방문한 후에 여러 번 만주를 방문하고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중에서 그동안 국책문학으로 평가받았던 소설 「어느 독농가의 술회」, 「순례」 『개간』을 통해 만주를 배경으로 ‘개척’과 ‘갱생’에 대해 작가의 의식이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척’과 ‘갱생’ 사이의 개척촌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19세기 중엽 궁핍함을 견디다 못한 조선 북부 지방 농민들의 월경 잠입에서 비롯되었”는데, “1880년대에 1만 명 정도였던 조선인들은 일제시대 초기인 1910년에 20만 명에 이르렀다가, 일제시대가 끝나갈 무렵인 1944년에는 170만여 명을 헤아”⁵⁾릴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만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만주를 소재로 쓴 작품의 수도 증가하는데, 시기별로 작품의 내용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1920년대에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현실을 폭로한 작가로 최서해와 강경애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중국인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이주조선인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을 발표했다. 만주를 배경으로 한 1920년대의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를 살펴보면, 주로 밭농사를 짓는 중국인들과 논농사를 짓기 위해 개간을 해야 하는 이주조선인 사이의 분쟁 또는 중국인 지주로부터의 여러 착취문제를 작품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1930년대의 경우 1920년대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만주가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최명익의 「심문」에서 만주는 전향 후 삶의 지향점을 잃은 식민지 지식인이 아편에 중독된 채로 방황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비석의 「삼대」 속의 만주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고 이태준의 「농군」 속의 만주는 아직도 농사방법을 두고 중국인과 갈등을 벌이는 공간이다.

5) 김기훈, 앞의 책, 197~198쪽.

그런데 이들 작품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1930년대 소설의 경우 만주를 무대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개척’과 ‘갱생’, 새로운 삶에 관한 메시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만주의 경우 ‘개척’과 ‘갱생’을 통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와 달리 성공적인 결과로까지 이끌 수 있다는 의도된 긍정, 즉 과도한 희망을 유행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일제 말기에는 이와 같이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개척소설’, ‘생산소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다.⁶⁾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혁주는 1943년에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쓴 장편 소설 『개간』을 발표하였다. 1931년에 일어난 만보산사건이 배경인 『개간』을 1943년에 장편소설로 발표하고 출판한 이유는 장혁주가 1939년 이후 몇 차례 만주의 조선인 개척촌을 방문하고 취재한 후에 발표한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9년 첫 만주 방문 이후 여섯 차례 만주에 갔던 장혁주는 여러 편의 글에서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데, 이 글들에서 장혁주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개척정신’이다. 장혁주는 개척촌에서 만난 이주조선인들의 고생담을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은 듯하다. 비적의 습격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탄압, 중국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아 자신들만의 성공적인 개척촌을 이룬 이주조선인들의 모습에서 장혁주는 ‘개척’과 ‘갱생’의 진정한 의미를 작품을 통해 그리겠다는 포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지금 이 같이 비옥한 농장을 보기만 하고 돌아갔다면 여기가 십년 전에

6) 이 의도된 긍정이 노린 효과는 일제 말기 만주이민정책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10~20년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등 지리적으로 만주와 가까운 조선인들이 주로 만주로 갔지만, 1930년대, 특히 193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전라도와 경상도 등에 거주하는 조선인들까지 만주로 이주한다. 그 이전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등에 사는 조선인들은 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도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만주이주를 국책으로 장려했던 1930년대 중·후반에는 조선 전역으로 대상이 의도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경주’에서 만주로 이주해왔다는 사실을 더욱 주목해야만 한다. 게다가 만주 이주 후, 조선의 문화와 풍습 등을 버리지 않고 성공적인 개척촌을 이룬 점 역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풀 하나 나무 하나 나지 아니하던 황무지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것인가. 그 생활력이 왕성한 만인(滿人)조차 이 막막(漠漠)한 지대에는 흙 한줌 파먹지 못했다니 가히 이곳 토질이 얼마나 나빴던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를 우리 개척민들은 팽이를 힘차게 내렸다. 그리고 염기성 알칼리라는 토지를 아낙네가 빨래를 하듯이 흙을 물로 밟고 씻고 하여서 십년 후 오늘날 같이 비옥한 땅으로 고쳐놓았다. 나는 나를 위해 좌담회에서 나온 여러 개척민들을 보고 ‘참 장했습니다’ 하고 칭송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차례로 이야기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한한 감격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중략)… 이는 작가란 직업 욕심으로 그가 벌써 먼 옛날이야기로 잊어버린 슬픔을 이제 새삼스럽게 회상케 하는 나의 행동이 심우 뉘우쳤다. 십년 전 이 슬픔을 겪지 아니한 개척민이 몇이나 될 건고. 그러나 오늘날에 그들은 개척민이 되었다. …(중략)… 여러 곳서 속기한 재료는 차차로 정리해서 작품화하려니와 …(중략)… 개척민 제군은 자기가 가진 모든 민족적 흠함을 극복하고 십년 동안 쌓여 나온 그 개척정신을 더한층 발휘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해주기를 바란다.⁷⁾

“염기성 알칼리라는 토지를 아낙네가 빨래를 하듯이 흙을 물로 밟고 씻고 하여서 십년 후 오늘날 같이 비옥한 땅으로 고쳐놓”은 이주조선인들과의 좌담회에서 나온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한한 감격에 빠져있”던 장혁주는 “작가란 직업 욕심으로 그가 벌써 먼 옛날이야기로 잊어버린 슬픔을 이제 새삼스럽게 회상케 하는 나의 행동”을 뉘우치며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쓸 것이라 다짐한다. 그래서 장혁주는 제일 먼저 만주 이주조선인들의 개척 과정에 주목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그 과정을 세밀하게 그린 작품을 발표한다. 장혁주가 제일 처음 구상한 이주조선인의 개척과정에 관한 이야기의 초점은 이주조선인에게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개척’하는 과정과 정신이 이야기의 주를 이루고 있다.

7) 장혁주, 2007, 「개척지 시찰 보고」, 민족문학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145~150쪽에서 번역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 소설은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량 군벌의 항일정책으로 인한 우리 이주농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후일 「만보산사건」으로 알려진 새로운 개간지에서의 충돌사건 그리고 만주건국 후의 밝은 건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건국 전의 구 군벌치하에서 이주자들의 생활은 실로 불행했다. 이 시기의 궁핍한 모습은 결코 과장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기에 그려진 것처럼 암울했다.⁸⁾

『개간』의 후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농민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만보산사건, 만주건국 후에 달라진 밝은 모습이라는 순서로 구성되었지만,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주조선인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모습이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개간』은 마지막 10장과 11장을 제외한 1~9장에서 이주조선인들의 치열한 생존 싸움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⁹⁾ 장혁주가 『개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농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개척의지 그리고 상황이 처참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개척의지로 조선농민들이 꼭 성공하고 말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만주에 정착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며 그 목표를 자력으로 이뤄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주조선인들의 모습에서 장혁주는 ‘개척’을 통한 ‘개생’의 의미보다 ‘개척’, 그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보산사건 이후 개척촌을 형성하는 과정은 이 소설에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으며,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나는 피난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말고. 나는 다른 토지로 가는 것은 딱

8) 張赫宙, 1943, 『開墾』, 中央公論社, 345쪽.

9) 『개간』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주 조선인들이 만주로 오게 된 배경과 만주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다시 떠나야만 하는 사정이 나온다. 이어지는 4장부터 9장까지는 중국정부의 배일정책으로 힘들게 개간한 땅을 두고 장춘으로 가서 새로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탄압으로 만보산사건이 일어나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로 진행되며, 10장과 11장은 이주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무력 싸움과 일본 영사관의 지원 그리고 이주 조선인들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질색이야. 전혀 모르는 다른 토지로, 목적도 없이 경지를 찾아 가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해. 고향을 떠나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몇 번이나 장소를 옮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그 때마다 온몸으로 참았던 절망과 한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아픔이 남아 있는 듯해. 겨우 좋은 곳을 발견해서 한숨 놓았다고 생각하니,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나는 싫다. 여기를 떠나는 것은 싫어.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곳의 땅속에 잠들어 계신 지금으로서는 여긴 내 고향과 다름없어. 이곳의 흙은 내 손바닥 안에서 새롭게 개간되어진 거야. 나는 이곳의 흙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예전처럼 꺼슬꺼슬하고 개간되지 않은 흙은 이제 주무르고 싶지 않아.”

“.....”

삼성은 고개를 숙이고 영준이 털어놓은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 영준의 말은 그대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짧은 말 속에 포함된 복잡하고 셀 수 없는 추억에 왈칵 압도되어 거의 숨이 막힐 듯했다.

“자, 생각이라도 해봐. 노령(老嶺)의 산기슭에서 신개령, 거기에서 여기로 흘러 왔을 때의 일을 말이야. 나는 그 때 겨우 스무 살이었을 뿐이었어. 부모님과 새 신부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토착민은 곤봉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풀뿐인 낮은 지대를 팽이로 개간하면, 관리라고 하는 놈들이 나와서 척간증(拓墾證)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겨우 이 토지에 소작권을 얻었을 때, 그리고 이 수량이 풍부한 법하(法河) 부근에서 어떻게든 생활이 피어 가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나. 나는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후유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라고 하잖아.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아니, 삼성, 너라도 저 갈대와 버드나무(泥柳)밖에 살지 못하는 늪지를 벼가 자라는 옥토로 만든 고생을 설마 잊어서는 안 돼.”¹⁰⁾

목숨과 바꾸더라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토지를 버릴 수 없다는 영준의 단호한 태도와 그를 이해하는 삼성을 통해 만주로 이주한 조선농민이 가진 땅에 대한 애착과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주조선인들에게 만주의 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은 영준뿐

10) 장혁주, 앞의 책, 7~9쪽.

만 아니라 힘든 개척과정을 함께한 이주조선인의 삶 그 자체였다. 이주조선인들은 조선에서 만주로 온 후에 몇 번이나 어렵게 개간한 땅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비적과 내통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국관헌에게 땅을 빼앗기기도 했고 배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인과 함께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서 땅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으며,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비적 때문에 땅을 버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주조선인들은 살기 위해서 개간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떠나고 정착하기를 반복한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이주조선인들에게 땅은 살아야 할 이유이자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렇게 이주 조선인들은 간신히 이곳에 정착하여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땅을 개간했는데, 또 다시 떠나야만 한다. 정주에 대한 이주조선인들의 갈망이 커져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찾기 전까지 “젊은이들은 지게로 도구와 나무토막과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양식의 곡물을 메고, 부인들은 이불과 의복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처음 부락을 찾던 때와는 많이 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온 당시에 비하면, 더욱 더 가난하고 참혹한 모습이었다.” “여러 번 빨아서 빛이 바랜, 누렇게 먼지로 더러워진 천 조각을 대고 누덕누덕 기운 얇은 의복으로 겨우 추위를 막고” 있었고, “태양에 그을려 붉고 주름이 많은 얼굴은 아무리 봐도 고된 노동의 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새로 개간할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곳, 아니 이번만은 반드시 정주할 수 있고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인가가 없는 장소”이자, “비습(匪襲)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세”, “무엇보다도 물을 사용하는 데 편리”한 곳을 찾는다.

“자, 종자를 뿌리자.”라고 사람들은 여자도 노인도 섞여서 종자를 흔어 뿌렸다.

아직 충분히 갈지도 않은, 흙투성이의 땅이지만, 어쨌든 뿌려두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을의 수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저 무턱대

고 종자를 뿌리고 싶다는 본능에 따른 것이었다.

묘상(苗床)을 만들지 않는 도작법(稻作法)을 생각해낸 그들은 준비되는 차례로 넓은 지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고 있었다. 그것은 항상 폭민의 습격을 겁내고 있었기에 어쩐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과 몇 년 만에 논 가운데 선 기쁨으로 흥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에 아주 흠뻑 젖어서 대부분을 씨뿌리기가 끝났을 때, 겨우 안심한 그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남도(南道)의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의 모내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억양이 강하고 위세 좋으며, 명랑활달한 노래의 리듬은 그들의 가슴 아래에 침윤해 있던 타고난 낙천성과 평화의 본성을 발휘하여 그들의 코앞에 직면해 있는 위험한 느낌마저 쫓아버리고 태고 이래 평화로운 장소에라도 정주한 듯한 쾌락감을 자아내는 것이었다.¹¹⁾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몇 번이나 가까스로 모면한 이주조선인들은 논농사에 적합한 땅을 찾자 다시 희망을 품고 의지를 불태운다. 그곳에서 정주를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개척할 땅을 만난 순간부터 이주조선인들은 기운을 차리고 정주를 향한 꿈을 또 한 번 꾸기로 결심한다. 장혁주는 『개간』에서 이주조선인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정주에 대한 열망이 만보산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작가는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이룬 승리 이후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국책문학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주조선인들은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목숨을 걸고 지킨 개척촌을 이상적인 마을로 완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 이주조선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로 결심하고 서로의 힘을 모은다. 그리고 청춘남녀의 결혼식과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것으로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¹²⁾

11) 위의 책, 270~271쪽.

12) 『개간』에 등장하는 두 번의 결혼식 장면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조선의 결혼식, 즉 결혼의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조선적인 문화와 풍습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주조선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내기 방법과 모내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등도 조선에서 했던 그대로를 재현하면서 이주조선인들이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용기를 독려하는 데에 조선적인 것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변발발 다음 해에 민회는 이 농장을 농민 자신의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 만조선농장조합의 설립을 계획했던 것이다. 자금은 금융회가 담당하고 민회가 농민자신의 농장경영을 지도하는 안이었다.

이것은 일본대사관 안에 조선과(朝鮮課)가 설치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농무계로 개조되었지만, 목표는 똑같은 자작농장제였다.¹³⁾

사람들은 그 환희 넘치는 기분을 그대로 다음 일로 이어갔다. 그들의 자체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회의 결과, 흠이 얼기 전에 임시 교사를 짓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된 다음날부터 저마다 도구를 들고 작업장에 모였다.

(중략)

삼성은 이 봉사적업에 나오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창오에게 말했다.

“아버지와 형의 묘에 다녀오고 싶은데—”

창오는 기분 좋게 승낙했다.

“아아, 다녀오는 게 좋겠네. 결혼한 것도 보고할 겸 꼭 다녀와라.”

“성묘하는 김에 유골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럼 여기로 이장하는 거야?”

“응—아버지와 형도 안심하실 거라고 생각하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 기회에 여기에 우리의 묘지도 선정해 두자.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대략 결정해 놓을 테니까.”

삼성은 아버지와 형의 유골을 이 마을로 이장할 것을 생각하니, 웬지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여행준비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가 이 기회에 영준일가의 묘도 둘러보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삼성도 그럴 작정이었는데, 영준일가는 역시 그곳에 잠들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¹⁴⁾

자세한 내용은 좋고, 『만주 판타지의 허상, 이주 조선인의 현실과 관찰자로서의 장혁주 - 『개간』을 중심으로』(2010, 『인문과학연구논총』 31집)와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2013, 『한국현대문학연구』 39)을 참조할 것.

13) 위의 책, 319쪽.

14) 위의 책, 343~344쪽.

제국 일본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간도와 만주에 주목하여 ‘만주 판타지’를 만들고 대중에게 유포하여 만주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하는 사실이었다.¹⁵⁾ 만보산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이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중국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렇듯 제국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국과 식민지를 가리지 않고 만주, 다시 말해 중국을 목표로 삼고 정책적으로 만주 이민을 장려하며 문인들의 만주 방문을 추진하고 개간의 성공 사례를 국책문학으로 완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런 상황 하에서 “국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민문학, 대륙문학, 생산문학, 해양문학이라 불린 문학이 성행하”¹⁶⁾는데, 이러한 성향의 문학작품들을 국책문학이라 부른다. 『개간』 역시 이주조선인이 만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개인 또는 집안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만보산사건으로 촉발된 만주사변의 정당성과 만주국 건설을 지지하는 국책적인 기술로 결말을 맺고 있기에 국책문학에 해당한다.¹⁷⁾고

- 15) 일본은 식민지민이었던 조선인을 만주에 이주시키는 정책만을 펼친 것이 아니다. “1936년 2·26사건을 계기로 성립한 히로다(廣田) 내각은 육군의 「만주개발방책요강」을 넣어, 동북에의 이민을 이른바 7대국책의 하나로 제안하여, 1937년도의 예산편성에 들어갔다. 머리말의 처음에 쓴 것 같은 형태로 이민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 이후 일본의 패전까지 9년간이다. …(중략)… 또 일본인 이민을 충당하기 위해, 조선인의 이민이 장려되었다. 1945년 5월까지 송출된 일본인 이민은 32만 1,873명, 계획 중에 패전을 맞이한 사람과 중도 퇴단자를 빼도, 대강 27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심은 성인의 집단이민단과 청소년의용군이였다. 이민정책의 실시기관은 만주국 측과의 연락이나 국내로부터의 송출을 맡는 척무성이 있고, 외곽단체의 만주이민협회(1935년 설립)가 이민의 후원, 선전, 알선, 훈련 등을 맡았다. 한편, 이민이 농촌경제개생정책의 일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단의 편성에 대해 농림성이 부원과 정촌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한다(오카베 마키오 저, 최혜주 역,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어문학사, 226~227쪽).
- 16) 그 선구적 역할은 농민문학으로 시마키 겐사쿠(島木健作)의 『생활의 탐구』(1937)가 계기가 되었다(조진기, 2000, 「일제의 만주정책과 간도문학」, 『배달말』 제27집, 226쪽).
- 17) 가령 아래와 같이 만주사변이 해결된 후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삼 년 동안 만보산 개척민으로서는 가시밭길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것은 이미 이전 에 그들을 계속 습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난은 아니었다. 그들이 느꼈던 소위 바위 같은 울적하고 답답한 기분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창오가 웬지 미래가 밝다고 말했던 것은 이와 같은 예언이었던 듯했다. 이렇게까지 세계가 변할 것이라고 누가 예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만보산의 용수로에 흘린 피가 귀한 오늘날의 빛나는 세계를 초래한 것이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아래로 그들은 해방되어 나온 것이다.(장혁주, 『개간』,

평가하는데, 『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부정할 수만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혁주가 『개간』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자 한 점은 이주조선인들이 험난한 개척의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고 개척촌을 건설하기까지의 과정이자 그들의 개척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사변 후 이주조선인들이 성공적으로 이룬 개척촌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술되지 않은 것이다. 이주조선인들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지키며 단결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은 ‘개척’을 통한 ‘갱생’의 결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¹⁸⁾ 짐작컨대 ‘개척’을 통한 ‘갱생’의 결과인 개척촌의 모습은 『개간』이 아닌 『행복한 사람들(幸福の民)』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재용은 『행복한 사람들』을 국책소설의 예로 들면서 “일본 문학계 내에서 식민지 출신의 작가로 이름이 높았던 장혁주가 ‘대륙개척간화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한 삼진 이후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를 독주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조선의 독립이라든가 일본 내의 혁명 같은 것은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안 자신이 닦아온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한층 확대하여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신질서를 만드는 것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했”¹⁹⁾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장혁주는 1942년 6월에 척무과로부터 남북만주의 조선인 개척지를 시찰하고 그에 관한 작품을 써달라는 의의를 받고 정인택, 유치진과 함께 만주로 떠난다. 그 후 정인

317쪽)

- 18) 줄고, 2012, 「장혁주 일본어소설 연구 - 『인왕동시대』, 『우수인생』, 『노지』, 『개간』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논문 참조.
- 19) 그러나 김재용은 장편소설 『개간』에 내선일체적 시선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는데, “삼성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만보산에 들어올 때 일본인 영사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선인 민회의 도움을 받는 것”, “중국인들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 이주 농민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일본 영사관에 연락하여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점을 들면서 “단순한 자기방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작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주조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일본영사관과 조선인 민회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용, 앞의 책, 20~23쪽).

택은 『검은 흙과 흰 얼굴』을 발표하는데, 이 작품은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일제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지역에 대한 감회와 유토피아적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노린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다.²⁰⁾ 이는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책문학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의 경우 비슷한 내용과 전개방식, 서술방식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장혁주의 『개간』은 이 지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개간』은 1943년에 발행되었으므로 작품에 대한 구상 및 창작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개간』에는 장혁주가 개척촌 방문으로 깨달은 ‘개척’과 ‘갱생’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장혁주는 『개간』이 발행된 같은 해인 1943년에 연이어 두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한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는 ‘개척’과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신민-되기’로 결실을 굳힌 장혁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에 세 작품을 연속선에 놓고 작가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갱생’에서 ‘신민-되기’로 나아가기

이광수는 “이광수”라는 조선 이름을 버리고 “香山光郎”로 창씨개명을 하였다. 이름을 바꾸는 순간부터 이광수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두고 김윤식은 “이광수”라는 이름으로 글쓰기와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라는 이름으로 글쓰기를 나누어 두 글의 내용이 전혀 달랐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20) “『검은 흙과 흰 얼굴』은 한글로 『조광』에, 『濃霧』는 일본어로 『국민문학』에” “같은 시기 두 문학지에, 두 언어로, 동시에 발표했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은 물론, 그 밖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만주의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선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의 만주 이주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지식인들도 적극 동참하여 왕도낙토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동아 신질서를 확립하는 길임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국책을 선전하는 목적문학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김순진 외, 2010, 『조선인 일본어소설 연구』, 제이앤씨, 26~42쪽).

“이광수 본명의 글쓰기가 ‘맨 얼굴의 글쓰기’였다면,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으로 창씨개명 한 후의 글쓰기는 ‘가면 쓴 글쓰기’였다고 지적한다.²¹⁾ 이름을 바꾸고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새로 태어난 ‘나’를 통해 이광수는 ‘신민·되기’,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신민’이 ‘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이광수는 일본의 지배정책에 따르는 글들을 발표하면서 정신의 ‘개조’, 즉 ‘정신 갱생’을 증명한다. 식민지 조선의 최고 작가였던 이광수가 이러한 길을 걸었다면,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일본어작가였던 장혁주는 ‘신민’이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일까?

“1932년 만주건국으로 만주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책문학의 하나로 농민문학, 생산문학, 대륙개척문학을 강조”한 일본은 1938년에 ““대륙개척간화회”를 결성하고 그들의 만주정책을 문학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그대로 한국의 문학계에도 파급되어 1938년을 전후하여 이기영을 비롯하여 이태준, 채만식, 이무영, 이석훈, 정인택 등이 만주시찰단의 일원으로 만주를 시찰하고 이를 작품화하였다.”²²⁾ 장혁주도 이들과 함께 ‘대륙개척간화회’의 일원으로 만주를 시찰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척’과 ‘갱생’, 개척촌과 개척민을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을 소설 및 다양한 글로 발표한다. 창씨개명으로 “香山光郎”라는 가면을 쓰고 글을 썼던 이광수와

21) 김윤식, 2010,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22)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이 ‘개척민소설’이란 이름으로 『조선일보』(1939.10.12~1940.6.1)에 연재되면서 국책문학으로서 개척민소설이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인문평론』에서는 ‘생산소설’을 공모하고 『만선일보』에서도 만주건국에 따른 개척문학과 협화미담을 모집하도록 했다. 이러한 문단의 움직임은 마침내 1943년 4월 『춘추』에서 ‘개척민소설 특집’을 게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륙개척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니 후쿠타 키오토는 대륙개척문학이란 “식민지적 문학이 아니라 그 문학 이념 속에는 일본 고전 속에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신을 오늘의 문제로 나타내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민족본원적 정신의 현재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만주문학에 국한한다면 ‘민족협화의 이념’을 주제로 한 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만주문학의 하나에 머물지 않고 일만(日滿)을 포함한 흥하문학(興亞文學)의 싹’이라고 건강부회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문학을 만주 땅에 계승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 민족 문학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오죽이 협화하여 일본문학을 건설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에 ‘예문지도요강’이 공포되면서 문예는 완전히 국책홍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조진기, 2010,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69~74쪽).

달리 장혁주는 이름을 통한 가면 쓰기보다 적극적으로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글을 쓰는 방식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일본어작가를 넘어서서 진정한 ‘신민-되기’를 꿈꾸었다. 그렇게 일본어 글쓰기라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통해 제국의 일원으로 ‘갱생’되고 마침내 ‘신민-되기’에 성공한다.

어차피 “스스로는 권력을 갖지 못하면서 권력자의 비호를 받으며 진리를 소유하고 이를 활용하고 또 말하는 계층을 지식인이라 한다면”, “진리를 지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지만, 만일 그것이 그를 먹여 살리는 권력층의 비위에 위반될 경우” “진리를 위해 순사하느냐, 권력층의 요구에 순응하느냐의 길목에 항시 날카롭게 노출되어 있”다. 이 원리적 자기모순성이 이민족 지배인 식민지하의 지식인에겐 증폭되어 실로 날카롭게 부각된다.²³⁾ 장혁주도 마찬가지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즉 일본인이 됨-일본에 적극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씨개명을 하고 당당한 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을 고민한다. 1943년에 발표한 「어느 독농가의 술회」, 「순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만 보였던 장혁주의 행보 속에 숨은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장혁주의 친일소설이라고 일컫는 「어느 독농가의 술회」는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작품이다. 1943년 1월에 발표한 이 소설은 내용적 측면에만 주목하여 친일소설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1943년에 발표한 작품들의 사이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장혁주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간의 싸움이 작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작품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장혁주는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국민-되기’의 각오와 열정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장혁주는 이 작품을 통해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즉 진정한 신민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상을 받게 된 주인공 ‘나’가 “과연 독농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

23) 김윤식, 앞의 책, 238~239쪽.

을까?”라고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워” ‘나’다. 흔들리는 나를 독봉계 연합회 이사가 잡아준다. 사실 나는 “아편중독자였고 타이양(大洋) 밀수업자였다.”²⁴⁾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보다는 농사를 더 잘 지었다. 외모와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나는 집안 사정으로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 성인이 된 나는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 어울리게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다. 옛날에는 무척 잘 살던 친구는 이제 가세가 기울어 초가집에 살지만 열심히 돈을 벌기보다 놀기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의 그런 상황도 모르고 친구의 껍데에 넘어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기생집에서 날린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집에서 쫓겨난 나는 경성으로 오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아편 중독자가 된다. 아편에 중독되어 이곳저곳을 떠돌던 나는 중독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들어간다. 아편 중독을 고치고 의사의 추천으로 만주에 있는 개척촌으로 온 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땅을 개간한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해서 상까지 받는다.²⁵⁾

24) 이 작품에서는 아편중독자이며 사회에서 문제적 인물이었던 ‘나’가 만주의 개척촌에서 새로운 모습, 즉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갱생’하여 제국 일본의 지배를 받는 만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성장하는 ‘나’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아편과 마약의 문제, 특히 만주에서의 아편문제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일제는 만주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는 한편 아편을 공식적으로 제조, 확산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만주국 건국 원년에 ‘아편 흡연의 누습을 버리고, 민중건강 회복하여 만주국 건설을 완성하자’는 특별성명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만주국의 아편정책은 군수보충의 목적으로 소위 ‘이전양전(以戰養戰)’의 경제적 약탈이며, 아편중독으로 동북민중의 반항의지 내지 전체적인 국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될 만큼 양면적이었으며, “만주국은 1932년 ‘아편법’과 ‘아편법실사령’을 반포하면서 아편전매제도를 확립”하여서 양귀비 재배와 판매, 중독자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까지 관장했다. “아편의 전매를 통하여 거대한 이윤을 얻는 동시에 만주의 거주민을 아편중독자로 만들어 그들의 지배정책에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목적은 성공적이었는데, “1936년 초까지 아편중독자와 마약중독자의 총수는 111만 명으로 만주 총인구의 3.4%를 차지하였으며, 매년 아편중독자는 평균 15%, 약 16만 명씩 증가하였다.” “1938년 구내외적인 반대로 인하여 금연운동이 실시되었으나 1942년 태평양전쟁의 수요에 따라 일제는 만주와 몽골지역에서 아편생산을 다시 늘려 1945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만주에서 아편중독자는 최소 25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조진기, 앞의 책, 139~140쪽).

25) 일본은 의도적으로 “양귀비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① 지정 면적에 따라 양귀비를

이 소설의 내용만 본다면, 주인공 ‘나’가 모범적인 생활로 상을 받는 것을 주인공이 갈등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정말 모범적인 개척민이다. 아편 중독도 이겨냈고 다른 개척민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땅을 개간했으며, 비적의 약탈도 꾀꾀이 이겨낸 사람이다. 개척민 누구라도 ‘나’에게 상을 줄 수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개척촌의 규율을 훌륭히 따랐다. 더구나 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된 것도,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가 일군 땅을 보여주게 된 것도 다 개척촌의 규율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나’를 본받아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땅을 개간할 테니 말이다. 그래서 이사도 “망설일 필요 없네. 자네가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야. 부락민에게 미친 영향이 크잖아. 자네 공적은 도지사의 상장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면, 애초에 ‘나’가 보통 학교밖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와 성실했던 생활을 버리고 친구와 함께 향락에 빠져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작품에서 생략된 채 아편중독자이자 사회부적응자였던 ‘나’의 ‘갱생’ 과정만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개척’을 통한 건강하고 명량한 ‘갱생’,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타의모범이 되는 진정한 ‘신민-되기’의 성실한 과정과 그 결과를 ‘나’는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이사에게 훈이라도 난 것처럼 풀이 죽어 나”온다. 이사가 준 보고서를 차마 읽어볼 수도 없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비로소 보고서를 꺼내 읽는다. 이사가 적은 “이 같은 독행의 주인공인 본인은 과거에 소위 아편중독자이었으며 안동에서는 밀수에 종사한 적도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자였다. 이를 노력으로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은

재배하면 토지세의 면제, ② 재배 면적이 5묘를 넘으면 토지세 외에 병역면제, ③ 재배 면적이 20묘를 넘으면 ①과 ②의 특전은 물론 현(縣)정부의 표창을 받으며, ④ 재배면적이 50묘를 넘으면 ①, ②, ③의 특전과 함께 촌이나 현의 유력자 내지 사회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모범시민의 사례, 다시 말해 사회부적응자도 과거를 지우고 미래의 훌륭한 모범시민이 될 수 있다는 허상을 창조하여 이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국책문학의 전형적인 서술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진기, 앞의 책, 140쪽).

모범인물이 된 점은 독행보다 더 특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위 본인의 농사 근면과 자기 수련을 위한 간난신고는 다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글을 읽고 ‘나’는 조서를 던져버린다.

그리고 책상에 었드렸다. 격한 오열이 내 인후를 흔들었다. 나는 이 기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별거벗겨진 것만 같은 수치와 참회, 막연한 불인야 한꺼번에 밀려와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갔다.

(중략)

그런데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이 격동과 혼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갇아먹고 있던 뭔가가 다시 살아난 걸까? 나는 또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걸까? 아니, 이건 기우이다. 내가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그저 단순한 명상일 뿐이다.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활활 타고 있는 한 여름의 태양처럼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겠다.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²⁶⁾

그리고 ‘나’는 “침착하게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온 아버지와 대면한 순간 ‘나’는 마지막 시련을 이겨냈음을 깨닫는다. 개척지에서 성공한 ‘나’만을 아는 아버지는 아편중독자였던 ‘나’, 밀수꾼이었던 ‘나’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아내와 아이를 보며 ‘나’는 자신감과 끝없는 희망을 느낀다. “모든 것을 회상한 내 기분은 실로 평온”해져 “조서를 읽기 시작하던 때의 격동과 혼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나’의 앞길은 희망뿐이다. ‘나’는 더 이상 변혁을 꿈꾸지 않는 스스로에게 익숙해져서 서서히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나’의 전진은 포복의 전진이다. ‘나’는 고착화된 존재이며, 완전히 발

26) 장혁주의 『어느 독농가의 술회』는 1943년 1월 『농기』에 발표되었는데, 본고는 김재용·김미란이 편역한 『식민주의와 협력』(2003, 역락, 153~155쪽)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가벗겨진 새로운 인간의 출현이 아닌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자의 출현을 느낀다.²⁷⁾

흔들림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된 셈이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아니, 당당하게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확신을 갖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그에게 가하는 압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압력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에 의해 생산된 인간은 인간의 생산자, 곧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모범인물로 뽑힌 ‘나’는 사회의 건강함과 행복에 기여했기 때문에 행복할 자격을 갖추었다. 이사의 조서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게 만들고 이제야 비로소 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건설적 일꾼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나’는 이에 절대적으로 수긍한다. 이제 ‘나’는 모든 방황을 접고 비로소 앞으로의 할 정체성을 찾은 것이다. ‘나’는 지금처럼 모범적으로 여기에 매진하면 된다. 결국 작품의 도입부에 느낀 혼란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도기였던 셈이다.

농사만 짓던 ‘나’가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잘 노는 친구들을 만나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던 ‘상’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나’는 지금의 안정적 삶에 균열이 일어나는 듯한 위기를 느낀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애썼던 긴 시간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나’의 존재가 불안하게만 느껴진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긴 터널을 나온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만끽한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일본”이라는 제국을 받아들일 준비, 즉 명랑하고 건강한 ‘신민-되기’의 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개척’은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신민-되기’로 나아간다.

「어느 독농가의 술회」 이후 장혁주는 약 8개월 뒤 「순례」를 발표한다. 「순

27) 프란츠 파농 저, 이석호 역, 1998,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48쪽.

28) 루트비히 마르쿠제, 황문수 역, 1979, 『마르쿠제 행복론』, 범우사, 237쪽.

례」에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작가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나 망설임은 없다. 오직 확신만이 있을 뿐이다. 「순례」에는 흔들리는 인물이 아닌 확신에 찬 인물들이 등장한다. 잠시 정체성의 혼란으로 흔들렸던 이와모도는 신사에 참배하는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했다고 이야기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제는 ‘신민’으로 거듭난 것이다.

“제가 마루오가 학원에 들어간 것은 자발적입니다마는 때때로 자기 생각에 자신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략) 때때로 저는 정말 일본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먹는 것부터가 대단한 잘못이라고 꼭 마음속에 간직해 두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중략)”

(중략)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옛날 동무들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학원을 나왔을 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시다만 긴자로 나와 한 30분 돌아다니는 사이에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문득 옛날 동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히비야정류장에서 메구로행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문득 해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끝이 쭈뼛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동무가 전차 타는 것을 보고서는 그대로 되돌아서서 니쥬우바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무엇에게 끌려가는 듯 하였습니다. 매월 초하룻날마다 궁성을 참배하러 온 것이 문득 생각난 것입니다. 마루오가 선생이 거기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궁성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 학원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마루오가 선생님께 참회했던 것입니다.”

(중략)

“그래도 또 한 가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옛날부터 내선이 정말 일체였는지가 늘 맘에 걸렸습니다.”

(중략)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천 일백년 전에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란 말을 듣고 또 완전히 내지인이 되고마는 사실을 눈 앞에 보았을 때 그렇다 하고 저는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²⁹⁾

「순례」의 주인공 ‘나’는 이와모도의 이야기에 감동 받아 시찰이 아닌 단 기입소하여 훈련을 받기로 한다. “금방 나는 이 연약한 신사복을 벗어버리고 훈련생의 제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총을 메고 연병장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에 가슴이 울렁거”린다. “조선에 지원병제가 실시되고 뒤따라 징병제가 실시된 것”이 반갑고 “가슴이 설레이도록” 기쁘지만, “일년만 더 있으면 불혹에 달하는 나인지라, 뒤떨어진 자의 외로움이 종내 마음 한 구석에서 가시지를 앓았다.” 일본을 위해,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군대에 들어온 내지인, 조선인 병사들은 철저히 군대용으로, 전쟁용으로 길들여진다.³⁰⁾ 구호에 맞춰 훈련하고 기상하고 점음을 마치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 본연의 감정은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본을 위해,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군대에 들어온 이들을 옥보이는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젊지 못해 군대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하고 그들이 한없이 부럽다.

“어느 독농가”의 “술회”가 마무리되자 「순례」를 떠났던 장혁주는 이제 진정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할 것을 결심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때문에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장혁주, 그 자신이 일본을 위해 할

29) 장혁주의 「순례」는 1943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는데, 본고는 김재용·김미란이 편역한 『식민주의와 협력』(185~186쪽)에서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30) 일본 내부에서의 차별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그 차별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이 던지는 멸시를 매일 경험해야 하는 그들에게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중략) 일본이 동북아를 제패하고 있다는 현실적 정황이라든가 서양중심주의에서 동양을 구해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당시 일본에서 활동한 조선인 문학인의 경우 이러한 논리를 내면화하면서 식민주의에 포섭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일상적 차별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강력한 내선일체의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바로 자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러한 조선인 멸시의 현실을 넘어서서 내선일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해준 것이 바로 고대의 역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려신사의 존재였다. 무사시노에 있는 고려신사의 존재야말로 과거에 존재했던 ‘내선일체’의 산 증거로 선전되었다. 장혁주와 한식의 친일 문학 작품에서 고려신사가 공통적으로 비중있게 등장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김재용 외, 2004,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19~20쪽).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장혁주의 존재를 정말 환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례”를 마친 장혁주는 이제야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듯하다. 두 소설만 놓고 보면 장혁주는 자신을 최고라고 정의하는 코치, 즉 그에게 “영광된 자아”를 주었던 일본에 전적으로 귀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고민과 갈등 없이 ‘신민’으로서의 기쁨과 환희, 감격을 누리하고자 하는 작가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4. 건강하고 명량한 ‘신민-되기’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일본어작가 장혁주는 일본문단에서 활동하였지만, 식민지 조선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었다. 제국 일본이 떼어서 없애주지 않는 한, 그는 스스로 그 굴레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식민지 조선 출신 일본어작가라는 사실은 그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래서 장혁주에게 누구보다 ‘개척’과 ‘갱생’, ‘신민-되기’가 중요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제국 일본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의 출신은 비로소 가상의 제국이자 괴뢰국인 만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개척촌을 이룬 이주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혁주는 식민지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곳에서 진정으로 제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게다가 만주 개척촌의 이주조선인들은 험난하고 지난한 개척 과정을 거치면서 제국이 원하는 ‘신민’으로 ‘갱생’할 자격, 즉 신체 건강하고 명량한 자격을 갖추었던 것이다.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몸과 마음이 명량하지 못했던 사회부적응자의 성공적인 ‘갱생’에 관한 ‘어느 독농가의 슬회’를 들으면서 명량하고 건전한 정신을 차리자, ‘순례’를 시작한 식민지 지식인의 여정은 제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진정한 ‘신민-되기’에서 마무리되었다. 식민지

조선 출신이면서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글을 쓰고 일본문단에서 활동했던 장혁주는 ‘제국적인 것’과 ‘식민지적인 것’, 즉 ‘일본적인 것’을 지향하더라도 ‘조선적인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발견한다. ‘제3의 공간’에서 장혁주는 식민지 출신이라는 ‘보이는’ 존재에서 진정으로 제국의 ‘신민’이 되어 ‘보는’ 존재로 탈바꿈한다. 이 제야 비로소 그는 ‘식민지적인 것’과 ‘제국적인 것’을 ‘보는’ 존재로 탄생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장혁주는 ‘보는’ 것만을 ‘본다’. ‘보이는’ 존재로서의 과거는 지워지고 ‘식민지적인 것’과 ‘제국적인 것’은 하나가 되었다. 타인, 정확히 말해 일본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증명해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은 사라지고 당당한 제국 일본의 ‘신민’만 남았다. 그렇게 장혁주는 제국 일본의 ‘신민’으로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개척’과 ‘갱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스스로 ‘행복한 백성’³¹⁾이 되었던 것이다.

투고일 : 2013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 2013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15일

31)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백성’이란 장혁주가 1943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幸福の民』에서 차용한 것임을 밝힌다. 이 소설 역시 국책소설로 평가되는데, 『개간』과 마찬가지로 만주가 배경이며 개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재용·김미란 편역, 2003, 『식민주의와 협력』, 역락
김진수, 1940. 2, 「잔해」 『조광』 52
張赫宙, 1943, 『開墾』, 中央公論社
장혁주, 1943. 1, 「어느 독농가의 술회」 『농기』
장혁주, 1943. 9. 7-22, 「순례」 『매일신보』
장혁주, 2007, 「개척지 시찰 보고」, 민족문학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 논문 및 단행본

-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김려실, 2004, 「인터/내셔널리즘과 만주」 『상허학보』 No. 13
김순진 외, 2010, 『조선인 일본어소설 연구』, 제이앤씨
김윤식, 2001,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신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재용, 2010,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김재용·김미란 편역, 2003, 『식민주의와 협력』, 역락
김재용 외, 2004,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김지영, 2010, 「만주 판타지의 허상, 이주 조선인의 현실과 관찰자로서의 장혁주」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1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_____, 2012, 「장혁주 일본어소설 연구-『인왕동시대』, 『우수인생』, 『노지』, 『개간』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_____, 2013,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회
루드비히 마르쿠제 저, 황문수 역, 1979, 『마르쿠제 행복론』, 범우사
앤서니 기든스,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오카베 마키오 저, 최혜주 역,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어문학사
정종현, 2007,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제33집
조진기, 2000, 「일제의 만주정책과 간도문학」 『배달말』 제27집
_____, 2010, 『일제 말기 국책과 체제 순응의 문학』, 소명출판

■ Abstract ■

A Delicate Distance between “Becoming His Subjects”,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Focused on Jang Hyuk Ju’s 『Civilization』, 『Recalls some of
Exemplary farmer』, 『A pilgrimage』 『Civilization』—

Kim, Ji-Young

A representative of colonial Korea Jang Hyuk Ju Japan Japanese writer active in paragraphs, but the tags can be removed from the colony was shipbuilding. One that does not get rid of the Empire of Japan and broke, he confines himself in his attempt to escape, however it was not able to escape from colonial Korea in the fact that the Japanese writer and shadows and seemed to be a lifetime. Jang Hyuk Ju to share so than anyone else ‘pioneer’ and ‘rehabilitation’ a new ‘national-is’ the important. In colonial Korea, the empire could not get out in Japan until his native virtual puppet of the Empire, and Koreans in Manchuria came as new possibilities. Pioneer Village, created out of nothing accomplished by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wo weeks Koreans Jang Hyuk Ju nor a colonial empire from non-empire truly be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openly confirms that. In addition, the migration of Manchuria exploitation Village Koreans and the arduous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last one pioneered want empire ‘national’ to ‘rehabilitate’ entitled to, in other words the body is healthy and Merry who qualify. In this article, published in 1943, Jang Hyuk Ju shares three novels and explores the process was targeted.

www.kci.go.kr

Key words : Jang Hyuk Ju, Manchu, Pioneer, Civilization, Rehabilitation, Becoming his subjects